

새만금 농업지구 내년 상반기 착공

5공구 예산 1456억 확보

김제시 만경·진봉지역에 접한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김제시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농업용지 제5공구(김제시 광활면 일원) 사업비로 1456억원을 확정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공사가 전개될 예정이다.

농업용지 제5공구 사업은 ▲대규모 농·어업회사(694ha) ▲첨단농업 시험단지(166ha) ▲농산업 클러스터(308ha) ▲시설원에 단지(289ha) ▲

농촌마을(16ha)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은 1513ha(450만평)이다. 첨단 수출 원예단지가 포함된 농업용지 제5공구는 2015년 완공되면 수출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제5공구 인근의 간척지에 유람선 기착지(2선석), 녹색성장 시범단지(50ha), 방수제 2차선 도로(총 4.2km)를 조성하는 새만금 내경 7공구 사업을 착공했다.

이전식 시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이끌 대형사업이 성공하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김제=강철수기자 knews@



우리 ‘매 사냥’ 파트너

지방 무형문화재 제20호 보유자인 박정오 응사가 지난 15일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마을 아산에서 매사냥을 재연하고 있다. 매사냥은 매를 훈련시켜 야생 상태에 있는 먹이를 잡는 사냥방식으로,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지방 무형문화재 제20호 보유자인 박정오 응사가 지난 15일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마을 아산에서 매사냥을 재연하고 있다. 매사냥은 매를 훈련시켜 야생 상태에 있는 먹이를 잡는 사냥방식으로,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남뉴스

남원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변신중

시 56억 투입...금지·아영지구 조성 한창

남원시가 고품질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지, 아영지구 2개 집단지역 172ha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5억9300만원을 투입해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기존 재배지 위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과수단지의 경우 과수재배의 기반인 농로포장과 응·배수로 개설, 응수공급 등이 체계적으로 개설되지 않아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시는 2011~2012년 2년간 금지면 입암리·서매리 지구(100ha)에 안정적인 응수확보를 위한 암반관정(6공) 개발하고 대형 저수조 설치, 과원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급수관 설치,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5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흥부골 포도’ 주산지인 청계리의 5개리(72ha)에 관정개발과 응·급수로, 배수로, 농로 포장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비 7억여원을 들여 관

정개발(1개소)을 비롯해 송·배수관 설치, 배수로 (2개 사업)를 신설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2개소의 과실 전문 기반정비사업을 통해 과실 집단재배지역의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FTA(자유무역협정)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생산비를 낮춰 과수분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 과수 재배면적은 포도 385ha·복숭아 234ha·사과 110ha·배 70ha 등 모두 799ha로, 전북 도내 총 재배면적(4600ha)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관계자는 “신품종

출란 ‘아리울’은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품종 개발 및 농가 보급을 통해 국내 선물을

올 한 시즌을 선점하고, 나아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정읍, 침수 제로 지역 도전

6억 투입 연지·내장상동 등 하수관로 확장

정읍시가 매년 여름철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을 대상으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저지대인 지형적 특성상 매년 여름철이면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연지동 대실마을과 연지 1동, 내장상동 석교마을에 총 6억원을 투입해 하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상습침수를 입는 실내체육관 뒤편 연지동 1동 지구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연장 330m의 기존 원형 하수관(600mm)을 1.5m박스형 하수관로

로 확장한다.

또 매년 마을 일부가 상습침수를 입고 있는 대실지구에는 7000만원을 투입해 연장 35m의 기존 하수관(600mm)을 1m 박스형 하수관로로 확장한다.

이와 함께 시는 매년 마을 우수(雨水)가 안길 및 내장산 진입도로로 넘쳐흘러 차량통행 불편이 큰 내장상동 석교지구 1억3000만원을 들여 연장 110m의 기존 하수관(800mm)을 1m 박스형 하수관로로 확장 개량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복분자, 혈중 지질개선 효과”

고창 복분자연구소

고창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에 혈중지질(血中脂質)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창 복분자연구소(이사장 이강수)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공동으로 최근 고려대 한나스퀘어 대강당에서 ‘로하스(LOHAS=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시대’를 선도하는 복분자의 건강 기능성



효과’를 주제로 복분자의 혈중 지질개선 기능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6명의 교수 및 연구자가 복분자 효과와 산업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춘란 ‘아리울’ 품종 등록

군산시가 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신품종 난(蘭)생산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향기가 없는 한국춘란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한 ‘아리울’이 최근 국립 종자원에 신품종으로 등록됐다.

‘아리울’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생명공학센터(대표 김동용)에서 10여 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육종됐다.

시는 이번 신품종 난등록에 따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한 선물을 난 시장을 국내에서 생산한 품종으로 대체하고, 향후 난 수입국에서 난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생명공학센터는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일대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난 연구 및 생산단지(총면적 7616㎡ 규모)로 연구동, 과 배양실, 생산 자동화시설 등을 갖추고 300여종의 신 품종을 육종배양하고 있다.

단 신

군산농기센터 농가대상 삼채 재배교육

‘뿌리부추’라고 불리는 삼채(학명 알리움후커리)가 군산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는 최근 대야농민상담소에서 대야면 농업발전연구회(회장 이승주) 회원과 삼채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삼채

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삼채는 단맛·매운맛·쌉쌀한 맛의 3가지 맛이 나고, 성인병 및 건강생활에 유익한 효능으로 인해 원산지인 미얀마에서는 ‘국민 채소’로 불린다.

군산 대야면은 2013년도 삼채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선정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장성 백양사~정읍 내장산 국도 개통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와 전북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을 잇는 10.6km의 국·지도(49호선)가 지난 14일 개통됐다.

8년 만에 완공된 도로는 백양사길 자락인 전북 순창군 북쪽면에서 쌍치면을 2~4차선으로 확장, 운행 속도가 기존 시속 40km 안팎에서 70km로 빨라졌다. 교차

로와 교량이 각각 5개소, 터널 865m이며 총 공사비는 1150여 원이 들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 도로완공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서부산림청, 장성·치유의 숲서 지역협의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룡)은 최근 장성군 측령산 ‘치유의 숲’에서 장성군청, 지역주민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의 숲’ 지역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4개마을(추암·모암·대덕·금곡마을)과 연계해서 장성 ‘치유의 숲’ 발

한 서비스 향상과 산림보호활동 등 상호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간 21만명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청소년센터, 초등생 방학교실 운영

순창군 청소년센터는 내년 1월 8일부터 3주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나는 겨울방학교실 ‘놀면서 공부하자’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학습·체험·예능·야외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1·2학년(정원 20명)은 장원한자교실, 꼬마 요리사, 북아트,

팔러 비즈교실로 꾸며지며, 3·4학년(정원 20명)은 플레이 잉글리시(Play English), 초콜릿 공예, 법진공예, 원에 테라피 등으로 이뤄진다. 수강 희망 학생은 오는 28일까지 청소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063-650-1266)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보건소 지자체 보건평가 ‘우수’

고창군 보건소(소장 김형희)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2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보건복지부 포상금 1600만원을 받았다. 고창군은 지난 2008년부터 5년 연속 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

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암 및 구강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승보다 더욱된 안해아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투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